



# JTRUST

2016년 3월기 제3분기

## 결산설명자료

2016년 2월

**Jトラスト株式会社**

1. 2016년 3월기 제3분기 결산실적

2. 부문별 실적

3. 질의응답

# 면책사항

- 본 자료에 기재된 예측 등의 정보는 본 자료를 작성한 시점의 당사 인식, 의견, 판단 또는 예측이며 그 실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의 변화로 인해 실제 실적과 기재된 전망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IFRS기준 수치는 당사가 참고용으로 산출한 미감사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설명회 및 본 자료는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당사 또는 자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의 J-GAAP은 동행의 결산기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제1분기 : 1월~3월 제2분기 : 4월~6월 제3분기 : 7월~9월)



# *Key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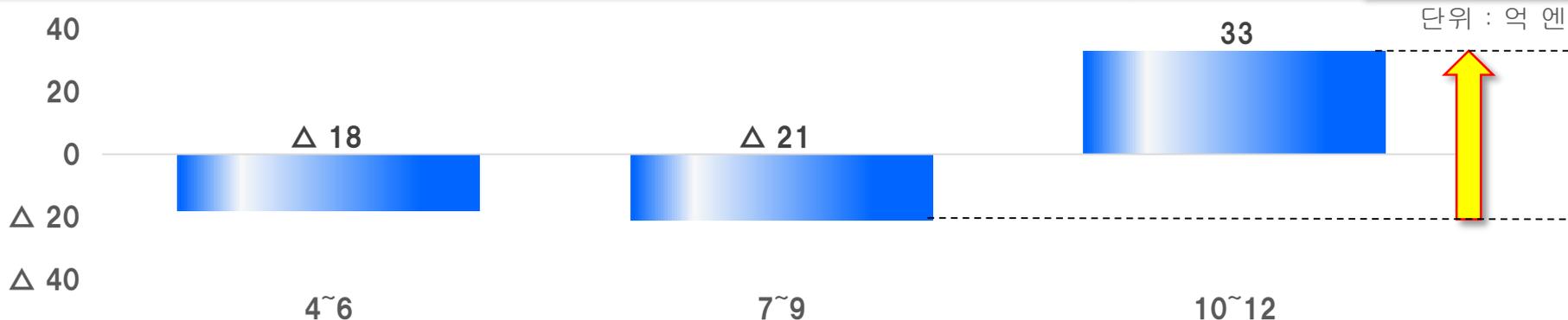
Point

- IFRS기준 연결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54억 엔으로 대폭 개선됨

IFRS기준 ※미감사

연결P/L

2016년 3월기	4~12월	1Q 4~6월	2Q 7~9월	3Q 10~12월	증감
영업수익	573억 엔	187억 엔	183억 엔	203억 엔	+20억 엔
영업이익	△6억 엔	△18억 엔	△21억 엔	33억 엔	+54억 엔



Point

➤ IFRS기준 2Q대비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이 크게 개선됨

IFRS기준 ※미감사

연결조정전 부문이익

2016년 3월기	4~12월	1Q 4~6월	2Q 7~9월	3Q 10~12월	증감
국내금융사업	33억 엔	11억 엔	8억 엔	13억 엔	+5억 엔
한국금융사업	△3억 엔	△8억 엔	0.7억 엔	5억 엔	+5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40억 엔	△5억 엔	△30억 엔	△5억 엔	+25억 엔
투자사업	27억 엔	-	8억 엔	18억 엔	+10억 엔
비금융사업	5억 엔	1억 엔	4억 엔	△0.3억 엔	△4억 엔
조정·기타	△28억 엔	△17억 엔	△12억 엔	2억 엔	+13억 엔
합계	△6억 엔	△18억 엔	△21억 엔	33억 엔	+54억 엔

## I. 국내금융사업

⇒영업수익·영업이익 모두 계획을 웃도는 결과

## II. 한국금융사업

⇒사업 및 한국결산은 순조로우며 온기에 걸쳐 IFRS계획 달성을 목표로 한다

## III. 동남아시아금융사업

⇒조기흑자전환을 위해 영업체제를 재구축 중

## IV. 비금융사업·투자사업

⇒J트러스트 아시아의 투자사업이 동남아시아금융사업 부족분을 보충



온기계획 달성을 향해 꾸준히 전진 중

# 2016년 3월기 제3분기 결산개요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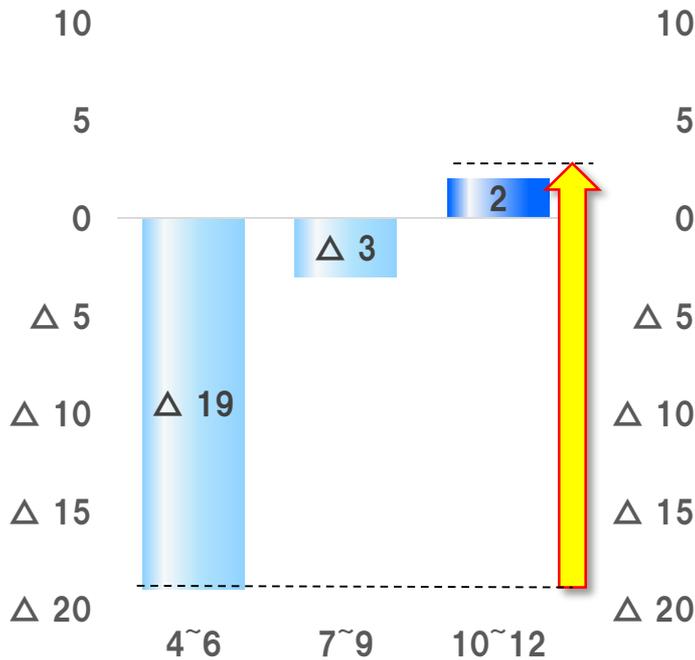
▶ 분기별 이익항목이 대폭 개선됨

J-GAAP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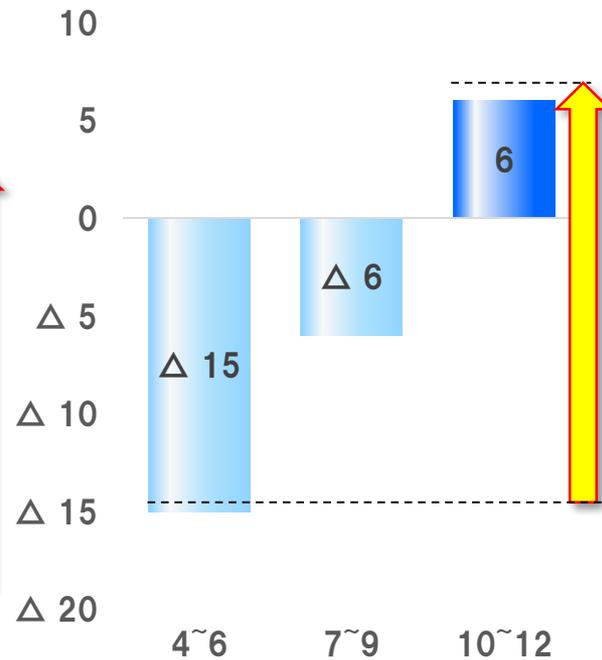
연결P/L 분기별

단위 :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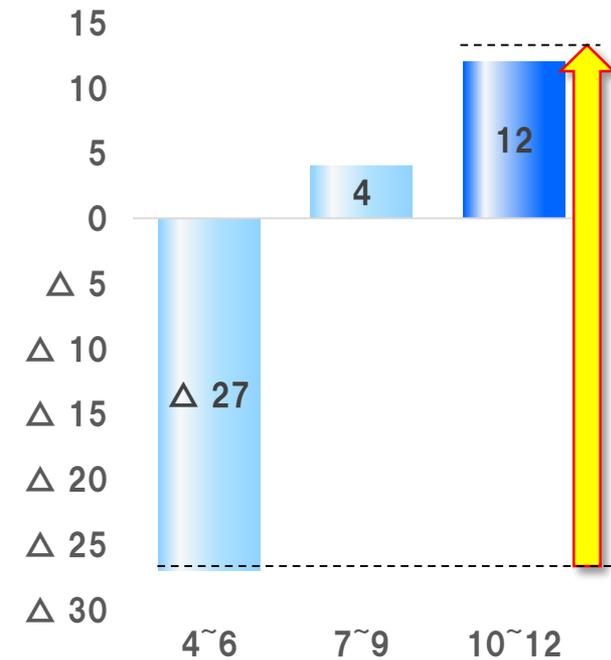
영업이익



경상이익



분기순이익



## Point

- ▶ 분기별 이익항목이 대폭 개선됨

J-GAAP기준	연결P/L (J-GAAP) 분기별				
2016년 3월기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영업수익	579억 엔	195억 엔	182억 엔	201억 엔	+19억 엔
영업이익	△21억 엔	△19억 엔	△3억 엔	2억 엔	+5억 엔
경상이익	△15억 엔	△15억 엔	△6억 엔	6억 엔	+12억 엔
모회사주주에게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10억 엔	△27억 엔	4억 엔	12억 엔	+8억 엔
영업이익율	△3.64%	△10.01%	△2.10%	1.13%	+3.23%
ROE	△0.63%	△1.51%	0.27%	0.75%	+0.48%

# 부문별 실적

Point

- 각 사업의 영업수익은 모두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이
- 연결영업수익은 579억 엔

J-GAAP기준	영업수익				
2016년 3월기 3Q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국내금융사업	82억 엔	26억 엔	27억 엔	29억 엔	+2억 엔
한국금융사업	199억 엔	74억 엔	59억 엔	65억 엔	+6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90억 엔	32억 엔	29억 엔	29억 엔	±0억 엔
투자사업	26억 엔	-	8억 엔	18억 엔	+10억 엔
비금융사업	167억 엔	51억 엔	60억 엔	56억 엔	△4억 엔
연결조정후 합계	579억 엔	195억 엔	182억 엔	201억 엔	+19억 엔

\* 이월계상

Point

- 국내금융사업 · 투자사업이 크게 공헌함
- 한국금융사업은 전분기대비 2억 엔 개선 (7~9월 = Δ1억 엔 10~12월 = 1억 엔)
- 동남아시아금융사업에서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인

제2분리결산시에 IFRS참고표를 공시함

J-GAAP기준

부문 이익 (연결조정 후는 연결영업이익)

2016년 3월기 3Q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국내금융사업	28억 엔	9억 엔	6억 엔	13억 엔	+7억 엔
한국금융사업	1억 엔	1억 엔	Δ1억 엔	1억 엔	+2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Δ57억 엔	Δ25억 엔	Δ9억 엔	Δ23억 엔	Δ14억 엔
투자사업	25억 엔	-	7억 엔	18억 엔	+11억 엔
비금융사업	2억 엔	1억 엔	2억 엔	Δ1억 엔	Δ3억 엔
연결조정후 합계	Δ21억 엔	Δ19억 엔	Δ3억 엔	2억 엔	+5억 엔

※ 이월계상

Point

- ▶ 제3분기연결회계기간에 대하여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IFRS기준은 현지 10~12월, J-GAAP은 7~9월로 3개월의 차이가 있음
- ▶ J-GAAP에는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의 영업권 상각이 포함됨

부문 이익 (연결조정 후에는 연결영업이익)

2016년 3월기 3Q	4월~12월 (1~3Q)			10월~12월 (3Q)		
	IFRS	J-GAAP	차이	IFRS	J-GAAP	차이
국내금융사업	33억 엔	28억 엔	+5억 엔	13억 엔	13억 엔	±0억 엔
한국금융사업	△3억 엔	1억 엔	△4억 엔	5억 엔	1억 엔	+4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40억 엔	△57억 엔	+17억 엔	△5억 엔	△23억 엔	+18억 엔
투자사업	27억 엔	25억 엔	+2억 엔	18억 엔	18억 엔	±0억 엔
비금융사업	5억 엔	2억 엔	+3억 엔	△0.3억 엔	0억 엔	±0억 엔
조정·기타	△28억 엔	△20억 엔	△8억 엔	2억 엔	△6억 엔	+8억 엔
합계	△6억 엔	△21억 엔	+15억 엔	33억 엔	2억 엔	31억 엔

# 국내금융사업

Point

- ▶ 영업수익 · 영업이익 모두 순조롭게 추이하여 계획을 웃도는 실적
- ▶ J트러스트카드 배당금 123억 엔은 그룹차원에서 기동적으로 활용할 예정

J-GAAP기준

국내금융사업 하이라이트

2016년 3월기 3Q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영업수익	82억 엔	26억 엔	27억 엔	29억 엔	+2억 엔
영업이익	28억 엔	9억 엔	6억 엔	13억 엔	+7억 엔

J-GAAP기준

주요 자회사 영업이익 추이

2016년 3월기 3Q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일본보증	26억 엔 <sup>※1</sup>	8억 엔	5억 엔	12억 엔	+7억 엔
파르티르채권회수	2억 엔	0.4억 엔	0.8억 엔	0.8억 엔	±0억 엔
J트러스트카드	2억 엔	0.9억 엔	0.7억 엔	1억 엔	+0.3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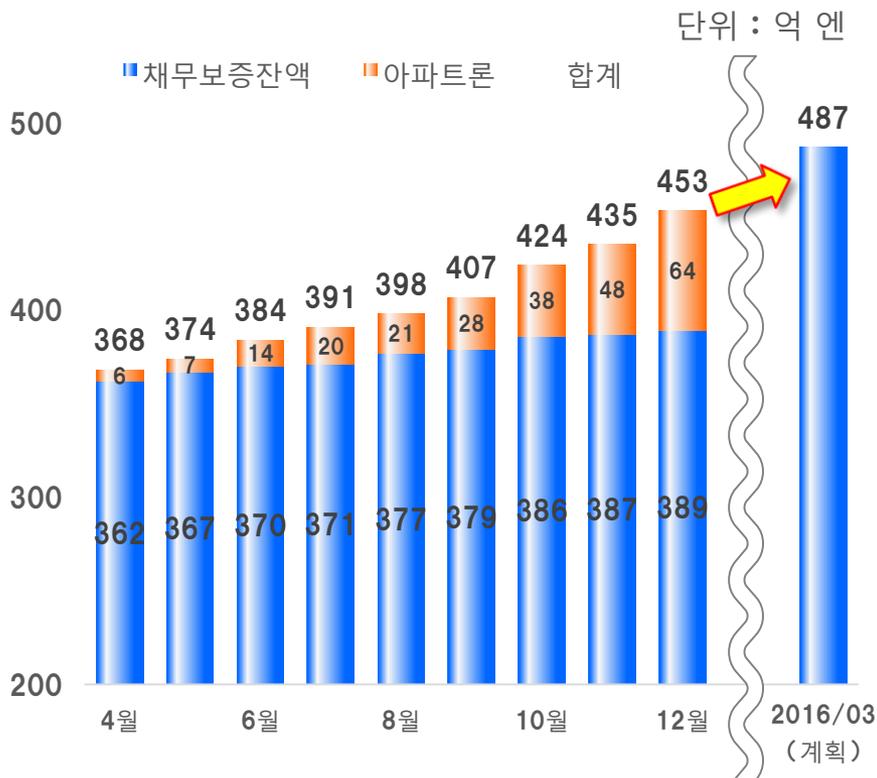
※1 일본보증 영업이익26억 엔 중 채권회수분은 10억 엔

※일본기준에 따른 개별수치(연결조정 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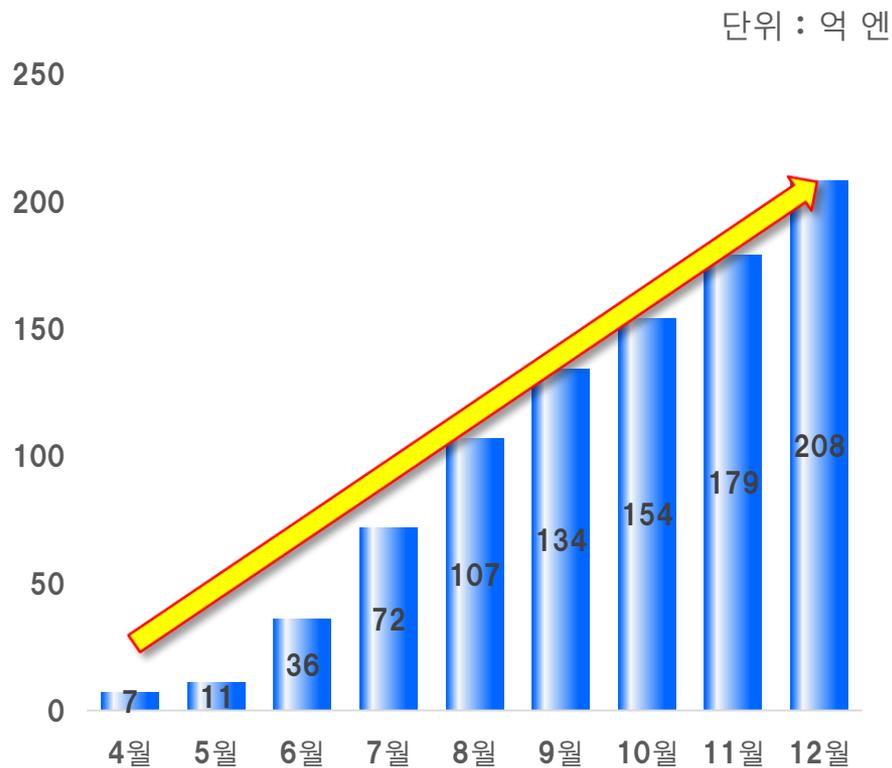
Point

- 보증잔액은 계획대로 추이
- 아파트론 본승인도 순조롭게 증가하여 당기계획 **487**억 엔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일본보증의 보증잔액 추이



아파트론 본승인 누계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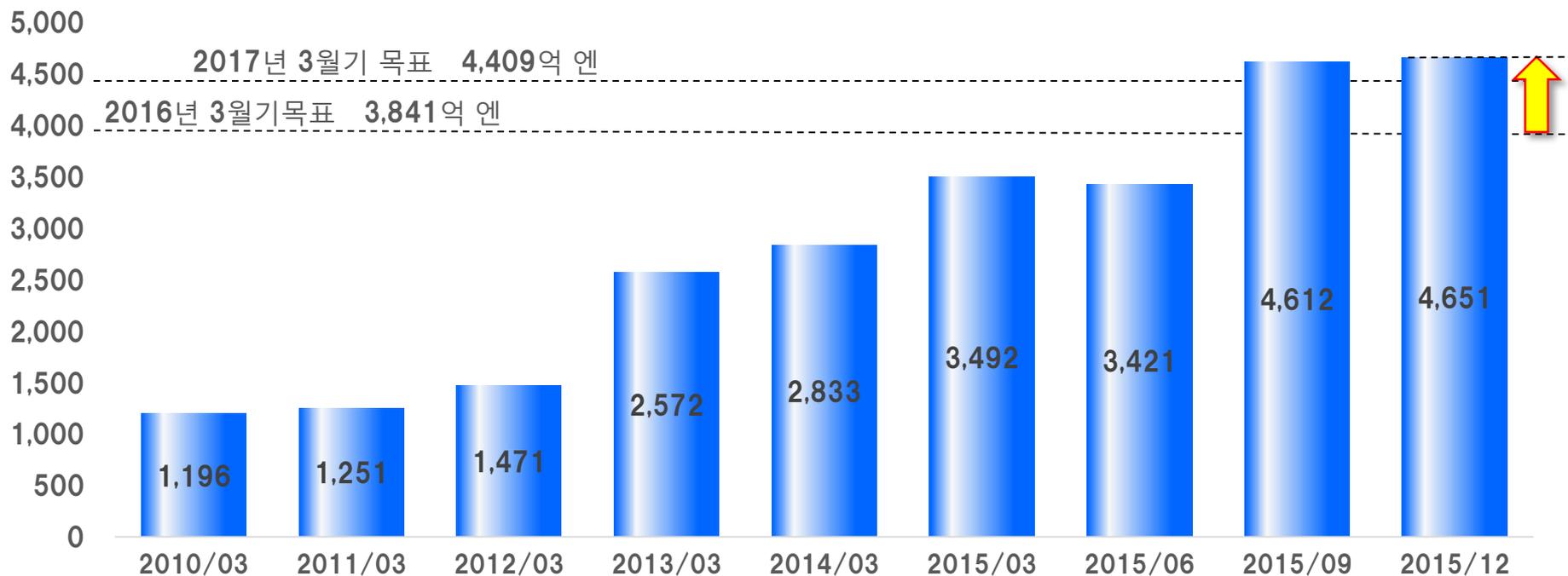


Point

- 제3분기에 파르티르채권회수의 청구채권잔액 증가
- 당기청구채권잔액목표 **3,841**억 엔을 이미 달성하여 목표를 대폭 초과  
(달성률 : **121%** 2017년 3월기 목표 달성)

청구채권잔액 추이

단위 :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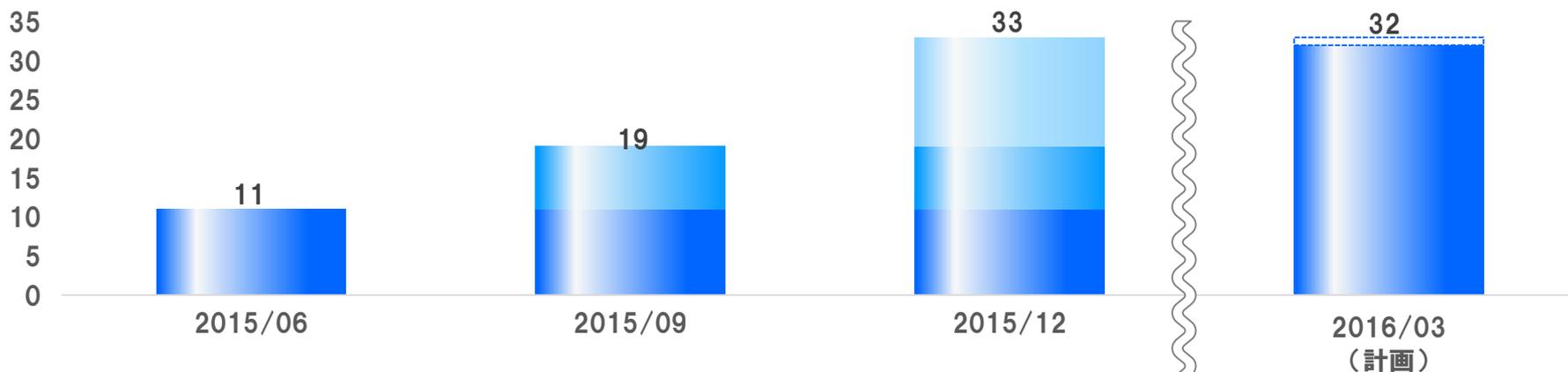
Point

- ▶ 당기 **IFRS**기준 영업이익은 이미 **103%**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고 추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

	2015/12 J-GAAP	2015/12 IFRS	2016/03 IFRS계획	IFRS계획 진척률
영업수익	82억 엔	79억 엔	111억 엔	71.2%
영업이익	28억 엔	33억 엔	32억 엔	103.1%

향후 영업이익 누적 예상 (IFRS)

단위 : 억 엔



# 한국금융사업

Point

- 영업수익은 순조롭게 추이
- 현지영업이익은 순조롭게 증가하였으나 **J-GAAP**상으로는 전기말에 계상한 부의 영업권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J-GAAP기준

국내금융사업 하이라이트

2016년 3월기 3Q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영업수익	199억 엔	74억 엔	59억 엔	65억 엔	+6억 엔
영업이익	1억 엔	1억 엔	△1억 엔	1억 엔	+2억 엔

J-GAAP기준

주요 자회사 영업이익 추이

2016년 3월기 3Q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JT친애저축은행	20억 엔	6억 엔	6억 엔	7억 엔	+1억 엔
JT저축은행	3억 엔	0.4억 엔	1억 엔	1억 엔	±0억 엔
JT캐피탈	28억 엔	39억 엔	△5억 엔	△5억 엔	±0억 엔
TA자산관리대부	10억 엔	1억 엔	2억 엔	6억 엔	+4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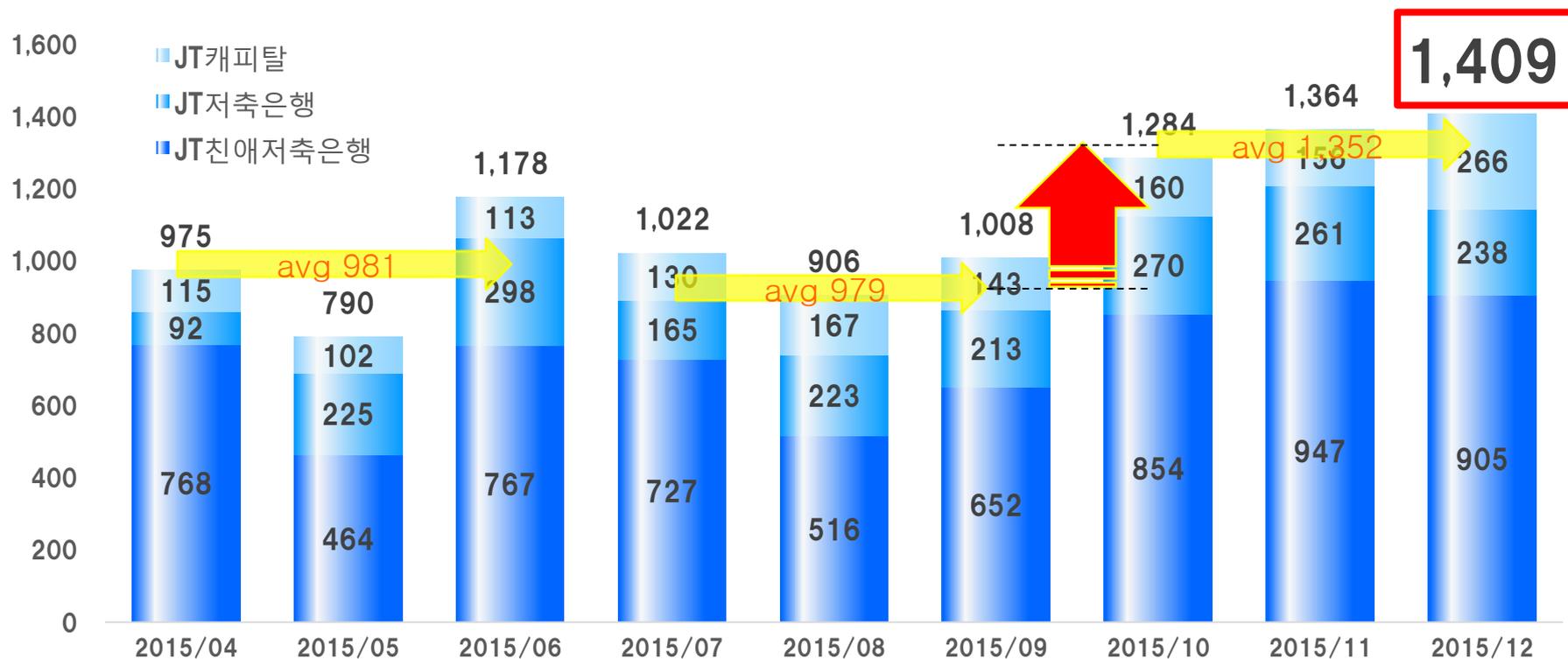
※일본기준에 따른 개별수치(연결조정 전) 기재

Point

- J트러스트브랜드 육성이 효과를 거두어 12월 월간신규대출금액은 1,40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월간신규대출금액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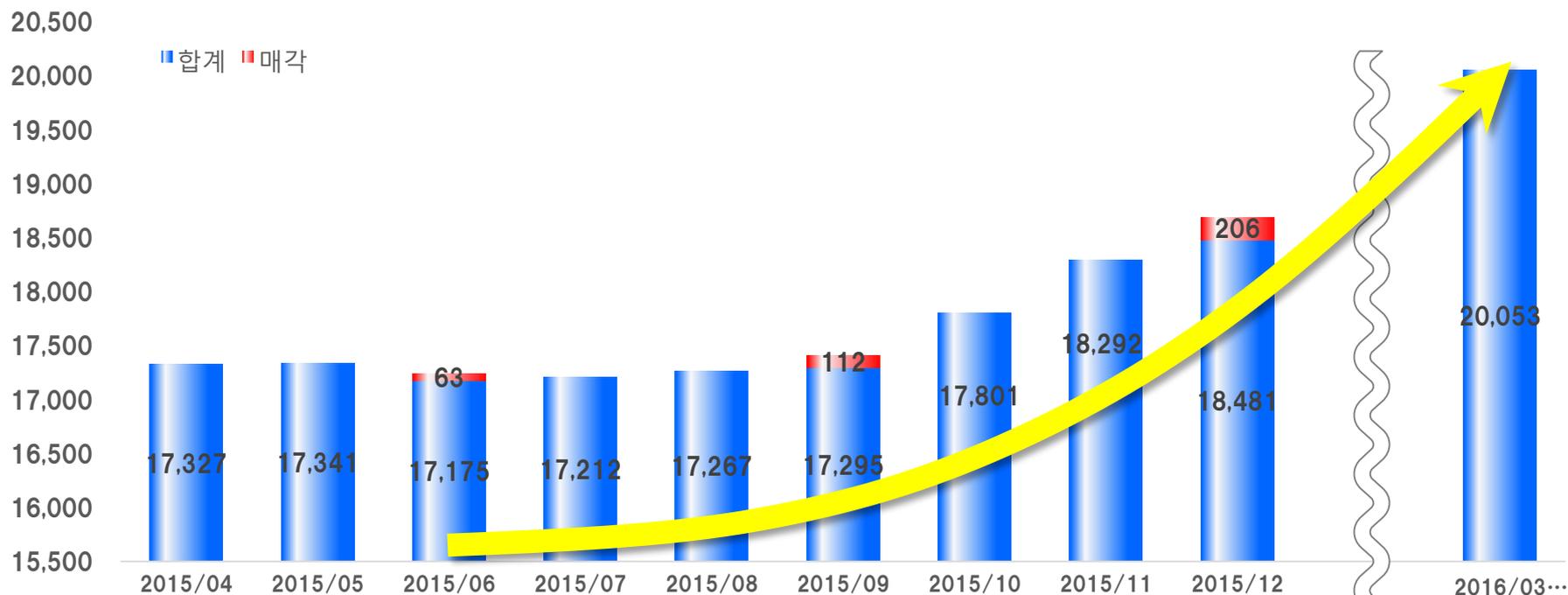
1KR₩=0.1033엔

Point

- ▶ 대출금잔액은 2015년 6월 이후 꾸준히 순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출금잔액 추이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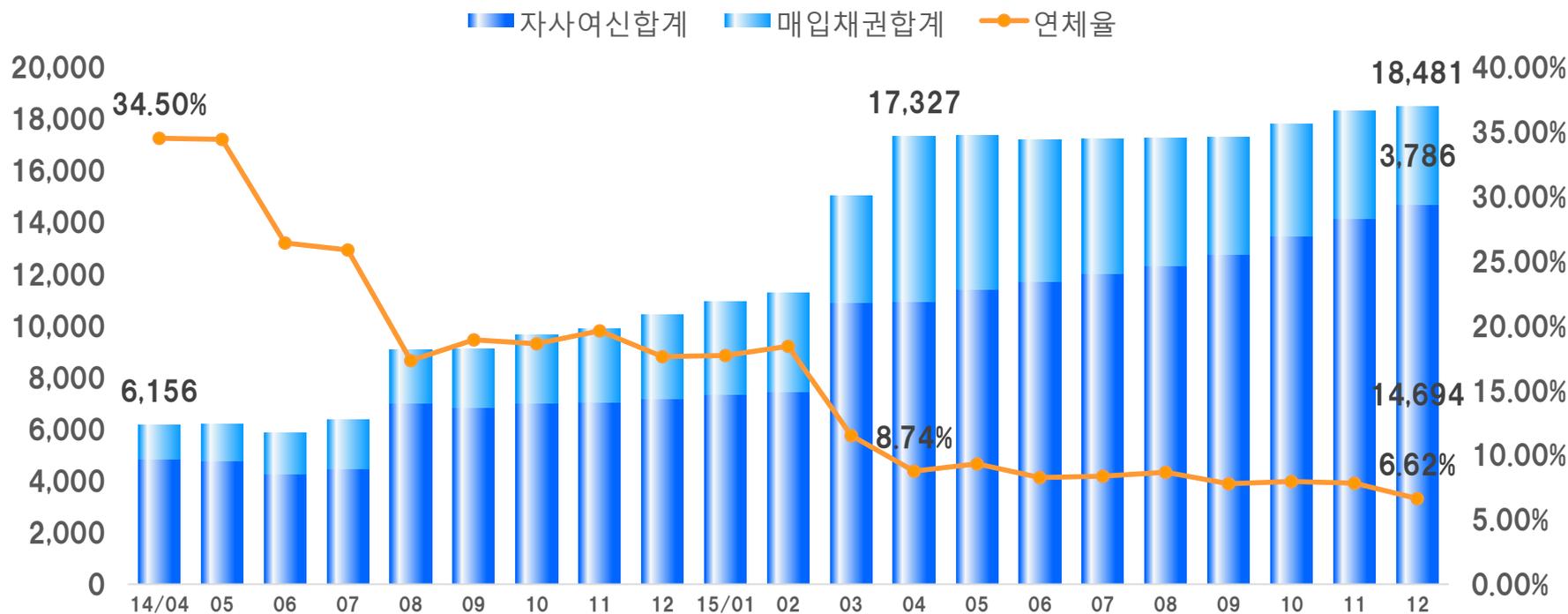
1KR₩=0.1033엔

Point

- 자사여신(대손율: 3%이내)을 부여한 채권의 꾸준한 증가 및 부실채권회수로 부실채권은 꾸준히 감소함
- 향후 대손비용이 더 감소할 전망

저축은행/캐피탈의 잔액 및 부실채권 추이

단위 : 억 원



※부실채권 = 30일 이상 연체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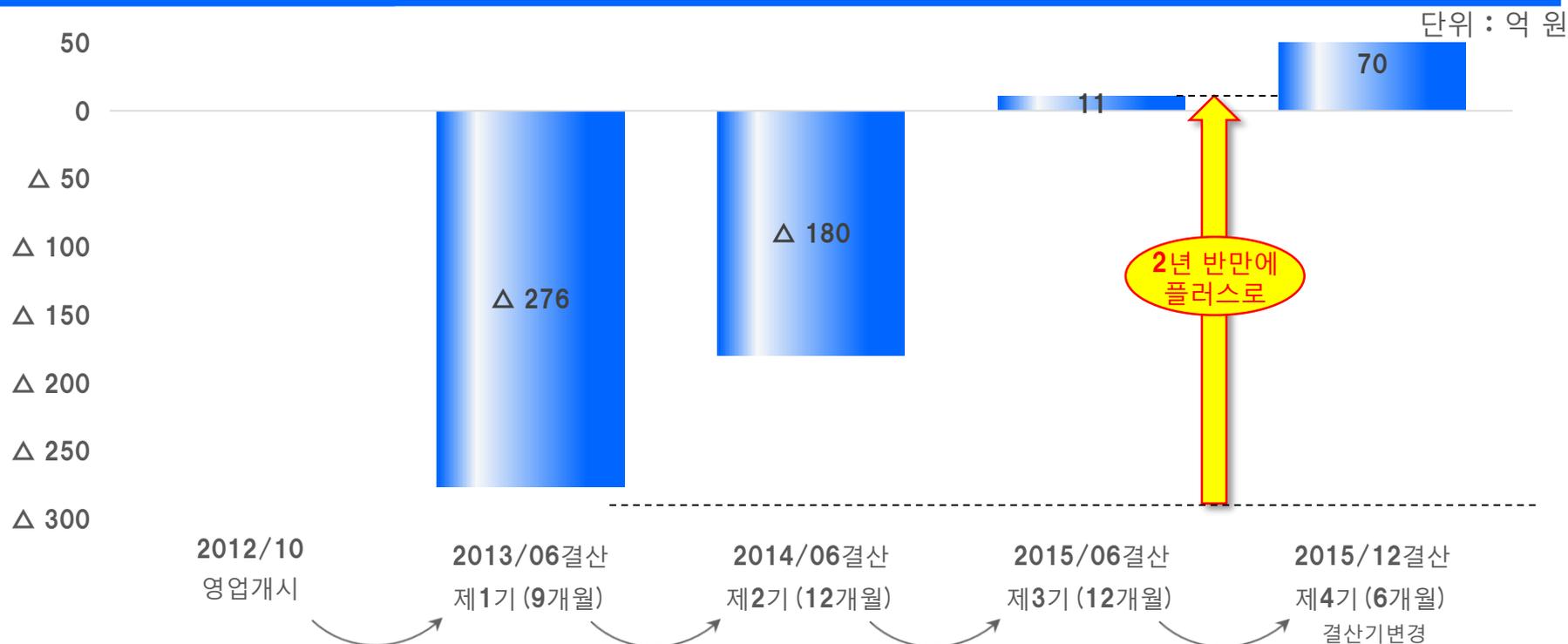
1KRW = 0.1033엔

**Focus**

- 설립 후 **2년**반만에 온기흑자전환을 달성. 도산한 저축은행의 일부자산·부채를 인수하여 재건
- 제4기 **JT**친애저축은행의 영업이익은 **70억 원**을 실현

**K-GAAP기준**

**JT친애저축은행 영업이익 추이**



※ 2015년12월, 한국 소재 모든 저축은행의 결산기가 12월로 변경됨

Point

- 2015년 12월, 글로벌종합경제지 아주경제가 주관하는 “아주경제금융증권대상”에서 “신뢰경영부문” 대상을 수상
- 본상은 한국 국내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고객과의 신뢰관계구축 및 철저한 컴플라이언스체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향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Point

- 2016년도 퍼스트브랜드상 수상, 저축은행부문 (79개 은행) 제1위를 획득 (전체 54개 부문)
- 한국소비자의 높은 평가와 지지를 얻고 크게 성장
- 선정기업 중 일본기업은 세븐일레븐과 JT친애저축은행 등 2개사

수상식 현장



평가방법 · 항목

평가방법	
소비자모니터링	국내거주 15세 이상 소비자 852,74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실시시기	2015년 11월 19일~29일
선정평가항목	
만족도에 관한 평가	품질 · 서비스 만족도
	가격 만족도
	기대 만족도
	재구입의사
선호도	타인전파→소개의지
	각 부문별 최선호 브랜드를 선택 (2위)



Point

- 2015년 3월기에 계상한 부의 영업권 발생익이 당기 연결영업이익에 영향
- 일본기준으로 환산한 한국 내 영업이익합계는 61억 엔

영업권 상각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12월말 현재)

단위 :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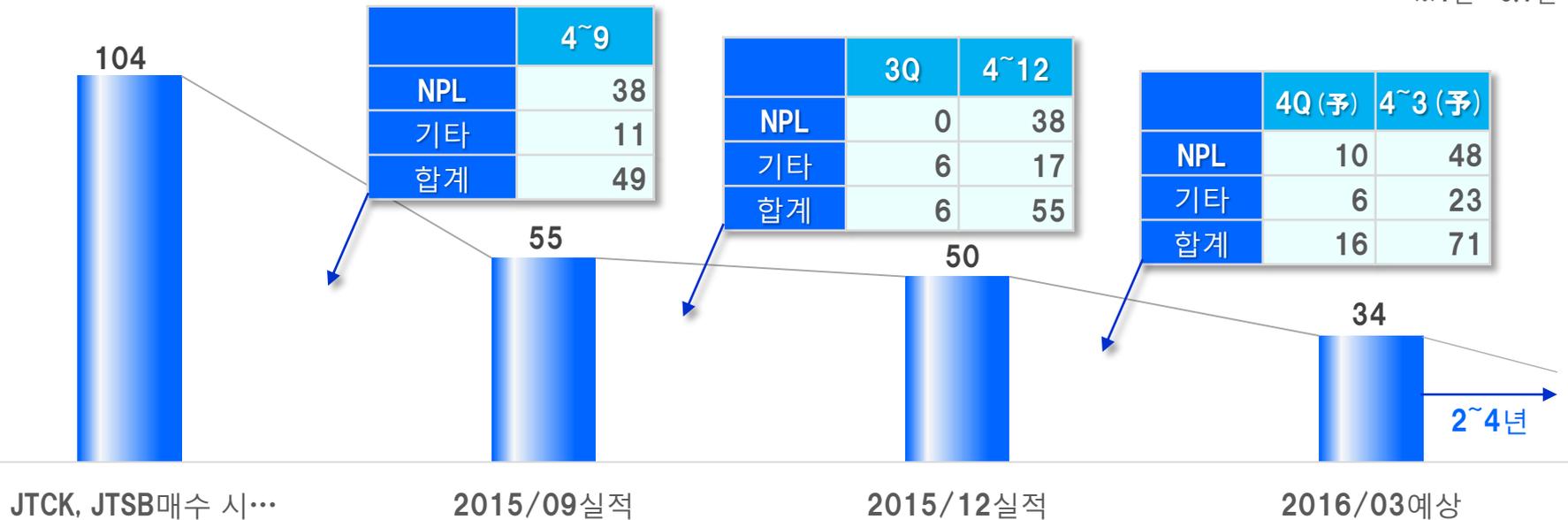


Point

- 2015년 3월기 연결결산에 계상한 JT저축은행 및 JT캐피탈 인수 시의 부의 영업권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영업권 잔액 감소 예상

단위 : 억 엔  
※1원=0.1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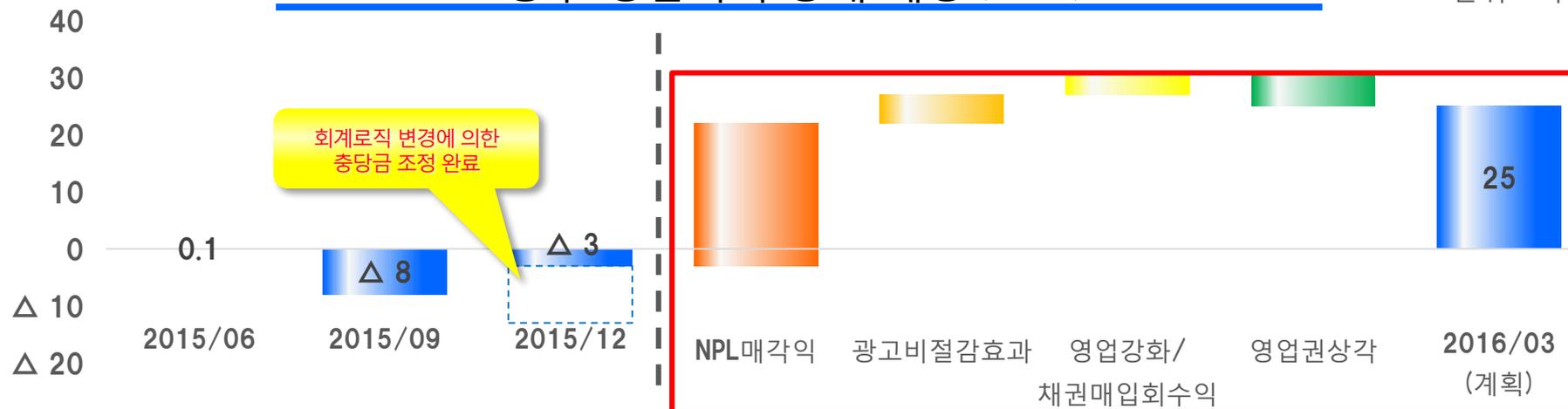
Point

- **NPL**채권 매각익, 영업강화 · 광고비삭감 등을 통한 온기계획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전분기까지 과제였던 **IFRS**기준 대손충당금 회계로직은 **12월말** 시점에 변경 완료

	2015/12 J-GAAP	2015/12 IFRS	2016/03 IFRS계획	IFRS계획 진척률
영업수익	199억 엔	201억 엔	300억 엔	67.0%
영업이익	1억 엔	△3억 엔	25억 엔	△12.0%

향후 영업이익 증대 예상 (IFRS)

단위 : 억 엔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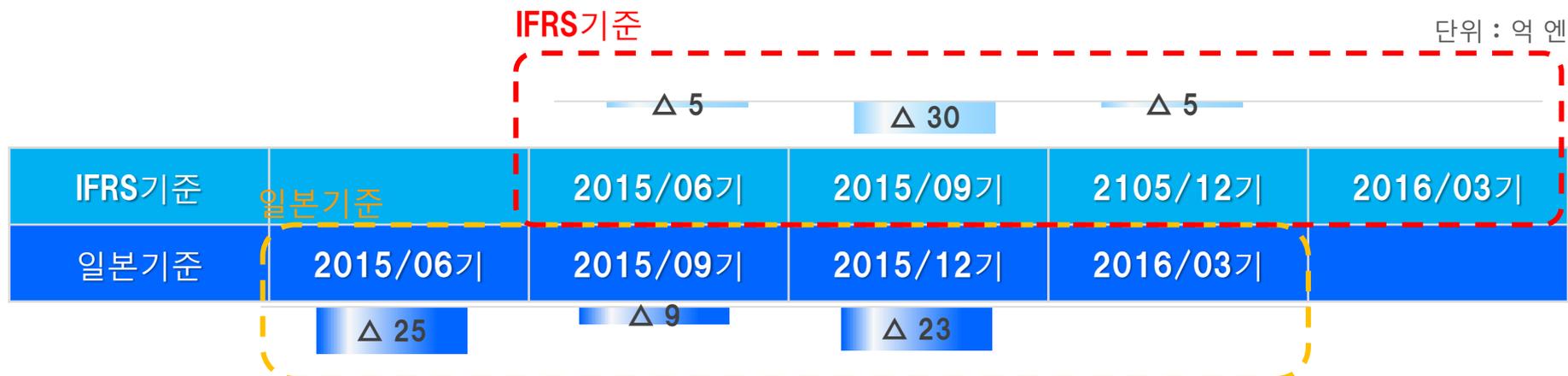
**Point**

- 영업수익은 동일수준. 부실채권처리로 인해 여전히 대출확대에 힘을 쏟지 못하는 상황. 월차 경상수지는 **2-3억 엔** 정도의 적자기조
- 대손충당금 전입에 의하여 영업손실이 확대됨

※ 제2분기 결산 시에 IFRS 참고치로 공시함

J-GAAP기준	동남아시아금융사업 하이라이트				
2016년 3월기 3Q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영업수익	90억 엔	32억 엔	29억 엔	29억 엔	±0억 엔
영업이익	△57억 엔	△25억 엔	△9억 엔	△23억 엔	△14억 엔

■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 실적집계예상 (영업이익)



Point

- 1월~3월 및 7~9월 적자는 대손충당금 전입이 주요 요인
- IFRS기준 제3분기(10월~12월)은 제2분기(7월~9월)대비 25억 엔 개선

■ 동남아시아금융사업 회계기준 차이 관련 (영업이익)

2016년 3월기	누계	1~3월	4~6월	7~9월	10~12월
IFRS기준	△40억 엔		△5억 엔	△30억 엔	△5억 엔
일본기준	△57억 엔	△25억 엔	△9억 엔	△23억 엔	

대손충당금▲14억 엔 포함

영업손실내역 :

단월경상부분손익 (약▲2.5억) ×3=▲7.4억+대손충당금전입 ▲5.2억 = ▲12.6억 엔

영업권 상각비 : ▲4.7억 엔

NPL채권매각손실 (보고기간 후 사건이므로 사전 계상) : ▲4.6억 엔

기타연결조정 : ▲0.8억 엔

연결기준 영업손실 : ▲22.7억 엔

Point

- 2015년 1월 이후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여 경영재건에 주력
- 부실자산의 평가와 양도,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자본추가투입을 빠른 속도로 실행

지금까지의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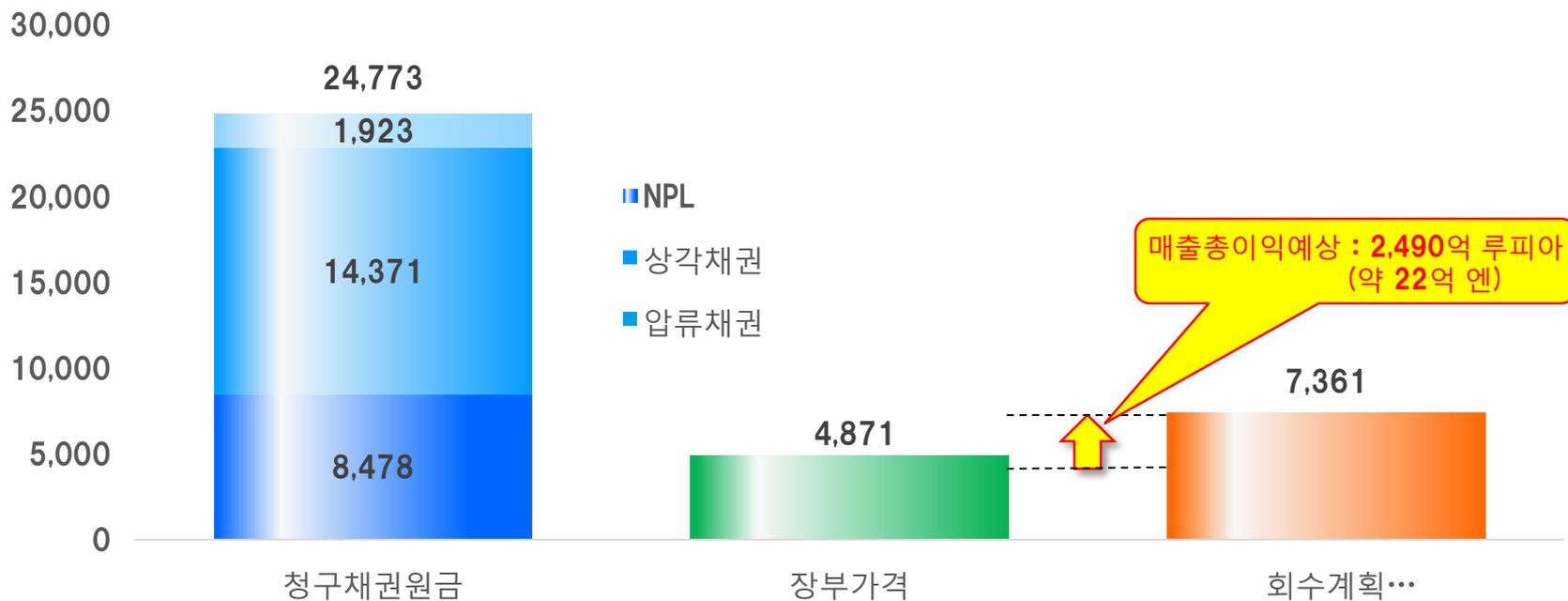
- ✓ 사명을 『Bank J Trust』 (J트러스트뱅크인도네시아) 로 변경
- ✓ 자산내용을 더 세밀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대손충당금을 계상
- ✓ 나아가, 회수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J트러스트인베스트먼트인도네시아 (JTII) 로 NPL을 이전
- ✓ 일본, 한국의 노하우를 결집하여 회수에 착수. 인재 파견 완료
- ✓ 은행 내에서도 부실채권화를 막기 위한 팀을 구성  
(Special Asset Management Team)
- ✓ 매니지먼트팀 파견과 재구성
- ✓ 추가 자본투입 (3월 3000억 루피아, 9월 4000억 루피아, 10월 25백만US달러 후순위채) 를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자산확대를 준비한다

Point

- 2.4조 루피아 (약 220억 엔) 의 NPL채권을 4,871억 루피아 (약 43억 엔) 에 JTII에 양도
- 2017년 12월까지 7,361억 루피아 회수가 예상됨

JTII의 NPL회수계획

단위 : 억 루피아



1IDR=0.0088엔

Point

- 인도네시아은행 베스트은행장상 수상 안도 리츠오 씨를 영입하고 체제를 강화하여 중기경영계획을 수행
- 안도 씨의 현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한 매니지먼트 인재를 적극적으로 초빙 중

안도 리츠오 씨 약력

1979年	다이와은행 (현 리소나은행) 입행
1989年	리소나프루다니아은행 (인도네시아) 이동
1996年	다이와은행 국지부 인도네시아실 이동
2001年	리소나인도네시아파이낸스사장 취임
2007年	아코무 입사 동사 해외업무개발부장 취임
2008年	BNP은행 (아코무 인도네시아은행) 부은행장 취임
2009年	BNP은행 은행장 취임
2013年	「인도네시아은행 베스트은행장상2013」을 수상 Best CEO, Indonesian Banking Award 2013
2015年	11월1일자 Bank J Trust Indonesia 입행 12월 : 이사 취임



Point

- 사명을 “**Bank J Trust**” 로 변경하여 향후 재팬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
- 친일국가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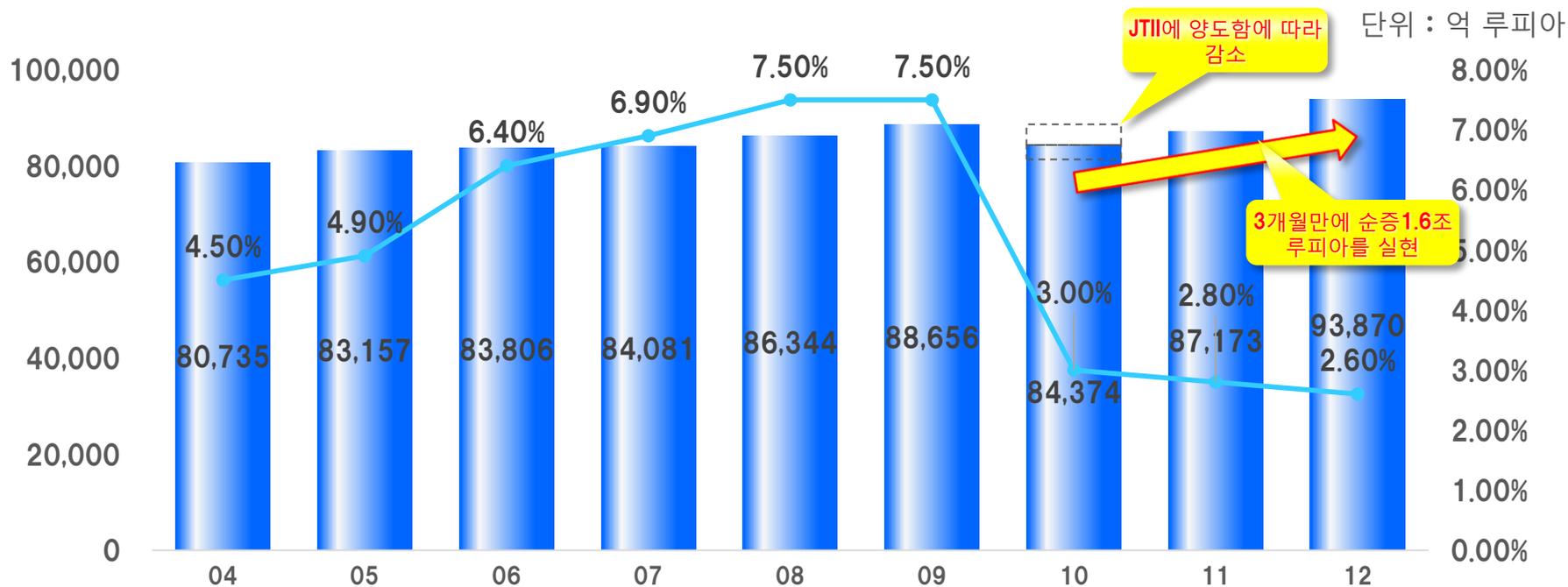
상호를 변경한 본점벽면간판 (좌) 과 본지점의 모습 (우)



Point

- 2015년 10월, 약 220억 엔 부실채권을 JTII로 이관
- NPL비율이 3%미만으로 떨어져 자본추가 투입과 함께 금융당국 특별감리대상에서 통상감리로 상태가 변경됨
- 대출잔액확대 경향으로 완전이행 (3개월만에 1.6조 루피아 잔액증대를 실현)
- 12월의 월간6,697억 루피아 순증은 인수 후 최대 성장폭

영업자산잔액과 부실채권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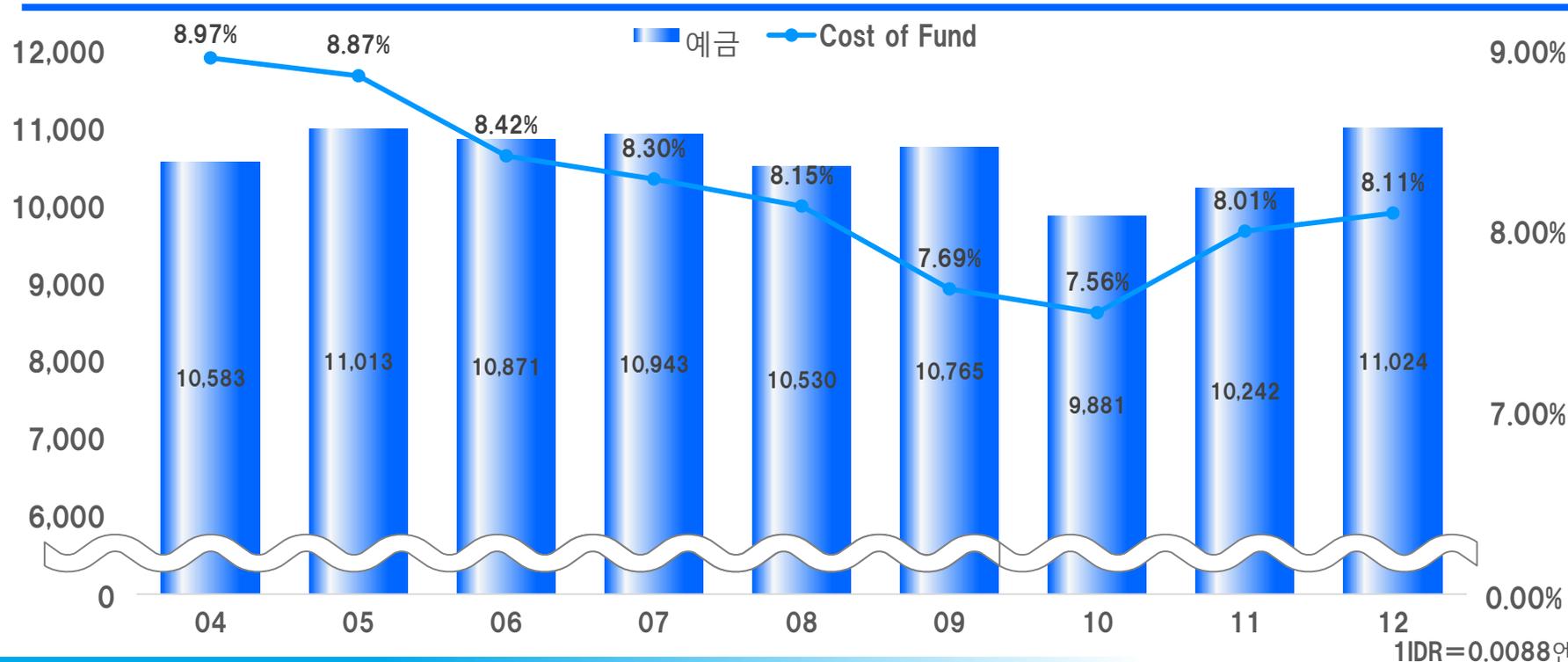
1IDR=0.0088엔

Point

- COF는 고금리 거액정기예금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금리를 내림으로써 단계적으로 저하
- CASA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업활동을 강화하여 저금리 예금이 증가
- 10-12월기는 월말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획득을 실시하여 금리가 약간 증가
- 달러표시예금을 합친 평균예금금리는 **8.04%**로 당기목표 (**8.20%**) 달성

예금 및 COF 추이

단위 : 억 루피아



**Point**

- 영업자산 및 평균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이자수익 증대
- 예금비용저감의 공헌도 있어 순이자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은 꾸준히 UP

**J트러스트인도네시아은행 주요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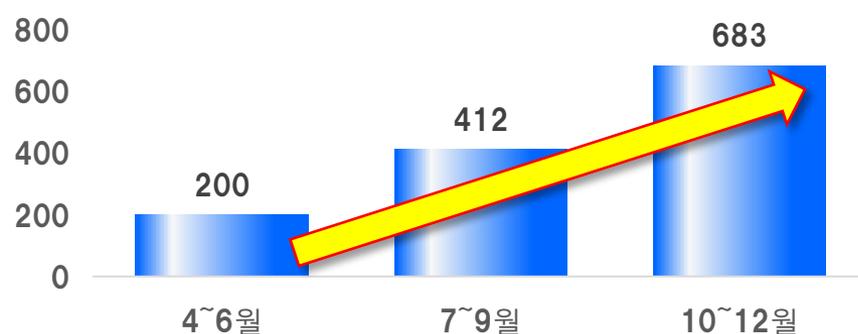
단위 : 억 루피아

2016년 3월기	4~6월	7~9월	10~12월
영업자산잔액	83,806	88,656	93,870
평균대출금리	9.99%	10.55%	11.22%
평균예금금리	8.43%	7.69%	8.04%
순이자수익	200	412	683

평균대출금리



순이자수익



**Point**

- 대출 : 신대출팀의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잔액 증대
- 예금 : 개인대상 인터넷은행 개시, 재팬데스크를 통한 **CASA** 획득으로 **COF** 저하

대출시책

-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대상전환
- ✓ **SME** 대출 증대
- ✓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확대
- ✓ **GLFI** (그룹리스파이낸스인도네시아)를 통한 개인할부판매금융 확대
- ✓ 재팬 및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예금시책

- ✓ 신예금상품 전개를 통한 예금확대와 **COF** 저하
- ✓ 모바일뱅킹 · 인터넷뱅킹 개시
- ✓ 일본에서 루피아표시 상품을 개발하여 일본의 파트너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저비용예금을 획득한다

Point

- 3월까지 대출잔액증대 · 금리비용 및 판매비삭감으로 정상적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전망
- IFRS기준에서는 NPL매각으로 인해 연체율이 개선되어 기말에 대손충당금 환입\*이 예상된다
- JTII에 의한 NPL채권 회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수익에 공헌

※환입금액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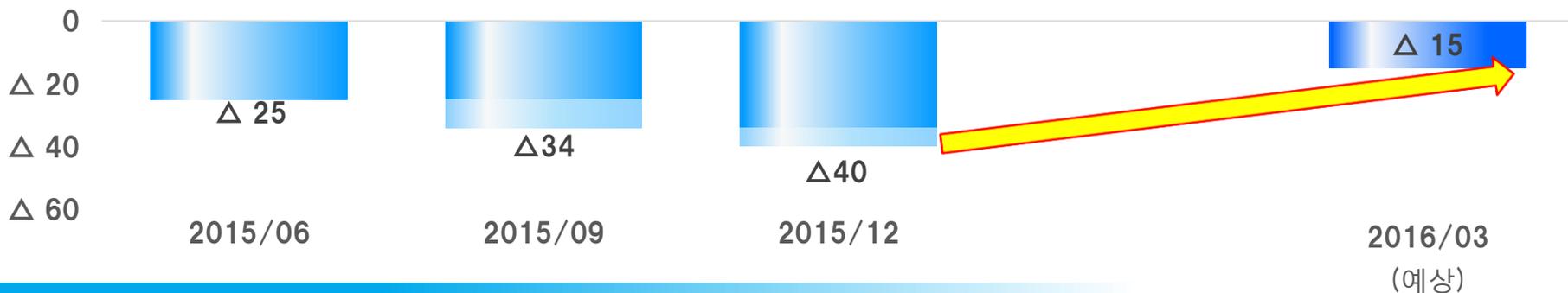
※2015년 1월~9월

※2015년 4월~12월

	2015/12 J-GAAP	2015/12 IFRS	2016/03 IFRS계획	IFRS계획 진척률
영업수익	90억 엔	88억 엔	120억 엔	73.3%
영업이익	△57억 엔	△40억 엔	15억 엔	△266.7%

향후 영업이익의 창출 예상 (IFRS)

단위 : 억 엔



# 비금융사업 · 투자사업

Point

- J트러스트아시아 투자사업이 크게 공헌
- 그룹리스 주식 전환사채평가의 및 전환사채실현이익을 계상함에 따라 투자사업은 **25억 엔**의 이익을 계상

J-GAAP기준

비금융사업 · 투자사업 하이라이트

2016년 3월기 3Q	4~12월	4~6월	7~9월	10~12월	증감
영업수익	194억 엔	51억 엔	69억 엔	74억 엔	+5억 엔
영업이익	27억 엔	1억 엔	9억 엔	17억 엔	+8억 엔

비금융사업/투자사업 영업수익

단위 : 억 엔



비금융사업/투자사업 영업이익

단위 :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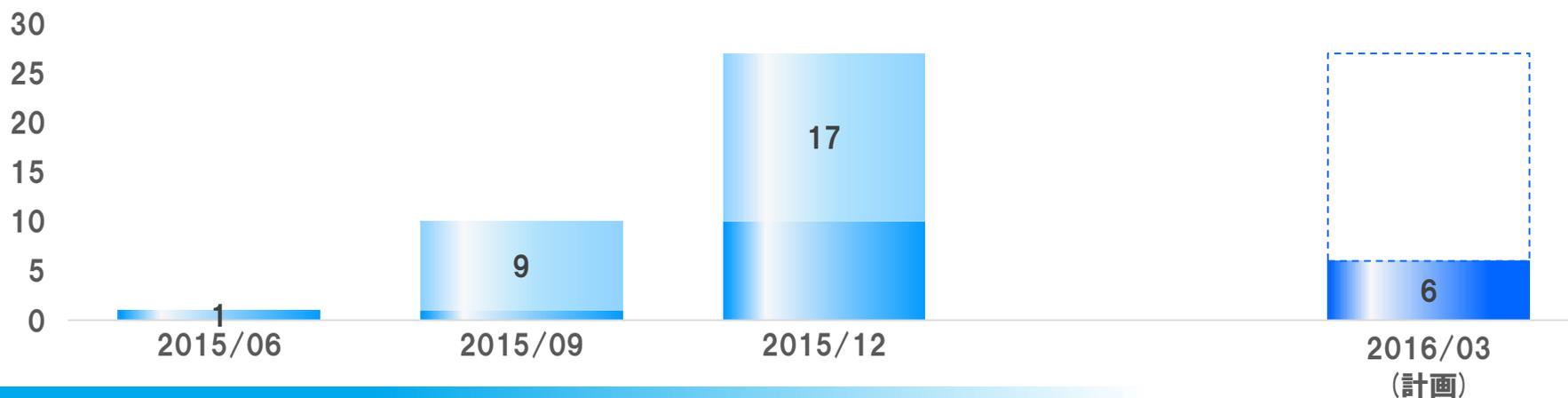
Point

- 연결실적에 공헌하기 위해 더 큰 이익창출을 목표로 한다

	2015/12 J-GAAP	2015/12 IFRS	2016/03 IFRS계획	IFRS계획 진척률
영업수익	194억 엔	194억 엔	250억 엔	77.6%
영업이익	27억 엔	32억 엔	6억 엔	533.3%

향후 영업이익 창출 예상 (IFRS)

단위 : 억 엔



# 정리

**Point**

- 동남아시아금융사업의 부족분을 국내금융사업 및 투자사업으로 충당하고 온기계획 달성을 목표로 한다

IFRS기준 ※미감사		온기계획과의 차이				
2016년 3월기 3Q	온기계획	4~6월	7~9월	10~12월	4~12월	온기계획과의 차이
국내금융사업	32억 엔	11억 엔	8억 엔	13억 엔	33억 엔	+1억 엔
한국금융사업	25억 엔	△8억 엔	0.7억 엔	5억 엔	△3억 엔	앞으로 28억 엔
동남아시아금융사업	15억 엔	△5억 엔	△30억 엔	△5억 엔	△40억 엔	앞으로 55억 엔
비금융·투자사업	6억 엔	1억 엔	12억 엔	18억 엔	32억 엔	+26억 엔
조정·기타*	-	△17억 엔	△11억 엔	2억 엔	△28억 엔	-
합계	75억 엔	△18억 엔	△21억 엔	33억 엔	△6억 엔	앞으로 81억 엔

※기타 : 어느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손익 및 연결조정 (환차손익, 개호사업손실, 자회사주식매각손 등)

